

탈진실 시대의 자기 동일성과 차이 그리고 포용의 윤리*

- 칸트와 들뢰즈, 벨쉬의 횡단적 이성에 관한 기독교사회윤리적 연구

최정철 (제주영락교회 부목사)

- I. 들어가는 말
- II. 탈진실 시대의 자기 동일성의 절대화
- III. 전통적 이성의 관계 이론: 칸트의 동일성 중심적 구조
- IV. 들뢰즈의 차이와 생성 철학: 관계성의 재구성
- V. 벨쉬의 횡단적 이성: 차이와 보편성의 조율
- VI. 비판적 종합: 횡단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포용의 윤리
- VII.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5.63.05>

* 본 논문은 2025년 11월 29일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 ABSTRACT •

Self-Identification and Difference, and the Ethics of Inclusion in the
Post-Truth Era - A Christian Social Ethical Study on Kant, Deleuze, and
Welsch's Transversal Reason -

Associate Pastor, Choi Jung-chul (Jeju Youngnak Church)

From a Christian social ethics perspective, this paper diagnoses the deepening problems of identity absolutization and the collapse of public truth in the post-truth era. It proposes an ethics of inclusion based on 'transversal identity'. Post-truth signifies an epistemological shift where identity and emotion determine truth, leading to closed, ego-centric homogeneity and the breakdown of the common good. The study first examines Kant's reason concerning identity, which established a modern fixation on identity, and then explores the potential for relational identity through Deleuze's philosophy of difference. To complement the normative limits of Deleuze's philosophy,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Welsch's transversal reason is a third form of rationality capable of harmonizing diversity and universality. Through this approach, identity is redefined as a transversal process rather than a fixed substance, presenting an ethics of inclusion to overcome exclusion in the post-truth era.

Key words: Post-Truth, Identity, Transversal Identity, Transversal Reason, Immanuel Kant, Gilles Deleuze, Wolfgang Welsch, Miroslav Volf, Ethics of Embrace, Christian Social Ethics, Common Good.

I. 들어가는 말

21세기 글로벌화 된 사회는 ‘탈진실’이라는 구조적인 환경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2016년 옥스퍼드 사전에서의 선정 이후, 이러한 현상은 정치와 미디어, 사회의 인식은 물론이거니와 종교공동체의 전반을 관통하는 근본적인 인식론적 및 윤리적인 문제로 심화되었다. 탈진실은 단지 허위 정보의 범람을 넘어서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개인의 신념이나 감정 혹은 정서적인 호소가 진리의 판단에서의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하는 현상적인 조건을 의미한다.¹⁾

이와 같은 환경은 개인과 공동체의 자기 동일성의 절대화에 관한 경향성을 극단적으로 강화한다. 환언하면, ‘내 진실’이나 ‘우리 공동체의 진실’을 타자와의 관계 및 공적인 검증으로부터 격리된, 흔들림이 없는 상태로 고착화시키려는 심리적이며 사회적인 기제가 작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 동일성 중심에 따른 정체성에 관한 인식은 필수적으로 타자에 대한 상호 간의 배제적인 정체성을 낳아서 결국에는 정치적인 양극화, 혐오의 발화, 정체성 정치의 심화, 더 나아가 공적인 대화의 붕괴로 점철된다.²⁾ 특히, 기독교공동체의 내부에서조차 이와 같은 상호 배제적인 정체성으로 인해 분열과 대립을 재생산함으로써, 기독교사회윤리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추구해왔던 공적인 진리의 실천과 화해의 담론은 점점 더 약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 정체성이 변형되고 확장될 수 있는가’ 그리고 ‘기독교윤리학은 탈진실의 시대에 있어서 정체성의 갈등을 충분히 해소하고 새로운 공적인 담론을 재구성할 수 있는가’

1) 송정민·김범수·이병재, “탈진실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가? 생산, 유통, 소비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32(2023), 92.

2) 최지수·윤석민, “가짜뉴스 거버넌스: 정부규제, 자율규제, 공동규제 모형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6(2019), 128-132.

라는 이와 같은 질문은 현 시대를 관통하는 시급한 윤리적인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탈진실 시대의 자기 동일성의 절대화 경향성을 해체하고 타자와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변형하고 확장되는 횡단적 정체성에 관한 모델을 제시하려 한다. 이를 기독교사회윤리의 새로운 기초로 구축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아래의 핵심적인 질문들에 응답하면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우선, 탈진실 시대의 자기 동일성의 절대화 현상은 기독교사회윤리의 공적인 진리의 실천을 어떻게 해서 구조적으로 소멸시키는가? 그리고 칸트(Immanuel Kant)의 이성의 구조는 왜 동일성을 중심으로 한 정체성에 관한 이해에 이론적인 기반을 제공했는가?

뿐만 아니라 들뢰즈(Gilles Deleuze)의 차이생성의 철학은 이러한 자기 동일성을 중심으로 한 구조에 어떠한 본질적인 도전을 제기하는가?

또, 벨쉬(Wolfgang Iversen)의 ‘횡단적 이성(transversal reason)’은 칸트와 들뢰즈의 인식론적인 대립을 초월하여 어떤 대안적인 관계성에 관한 모델을 제시하려 하는가?

아울러 기독교사회윤리는 벨쉬의 횡단적 이성을 받아들여 ‘횡단적 정체성(transversal identity)’의 윤리를 어떠한 과정으로 구성할 수 있겠는가? 이는 화해의 윤리와 공동선의 개념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위의 질문들은 모두 탈진실 시대의 정체성에 관한 위기를 해명함과 더불어 기독교사회윤리가 새로운 인식론적인 기반을 모색해야 하는 공통의 요청을 지니게 된다. 이에 따라 칸트와 들뢰즈 그리고 벨쉬의 철학적인 사유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체성과 관계성을 조명하면서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가운데, 기독교사회윤리가 직면한 공적인 책임의 재구

성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본 연구는 정체성의 이해에 관한 철학적인 기반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횡단적 정체성의 틀을 구축하기 위한 논지를 전개하려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한국의 기독교 사회윤리학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공공성 그리고 관계성과 연대의 윤리적인 요청과도 접목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탈진실’이라는 새로운 인식론적인 조건 가운데에서 이 전통을 확장함으로써, 정체성에 관한 구조의 재해석을 통하여 공공신학의 실천적인 방향을 모색하려 한다.

II. 탈진실 시대의 자기 동일성의 절대화

‘탈진실’은 단순히 가짜뉴스(fake news)의 양적인 증가 혹은 정보의 왜곡 현상으로 환원되지 않으며 오히려 진리의 공적인 지위가 점차 약화되고, 감정과 정체성이 진리에 대한 판단의 우위를 점하는 구조적인 인식론의 전환을 뜻한다.³⁾ 맥킨타이어(Lee McIntyre)는 탈진실을 ‘객관적인 사실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개인적인 신념이 진리의 판단에 우선적인 기준으로 작용하는 상태’로 명백하게 규정한다. 이는 단지 무지나 오류가 아니라, 사실 그 자체를 거부하거나 무력화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행위가 동반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⁴⁾

더 나아가 선스틴(Cass R. Sunstein)은 디지털 환경에서 작동되는 알고리즘이 각 개인의 선호에 맞는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에코 챔버(Echo Chamber)’와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을 구조적으로 강화한다고 분석하고 있다.⁵⁾ 이와 같은 환경은 현실의 인식을 사실의 문제

3) 최지수·윤석민, “가짜뉴스 거버넌스: 정부규제, 자율규제, 공동규제 모형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129.

4) Lee McIntyre, *Post-Truth* (Cambridge, MA: MIT Press, 2018), 13-17.

5) Cass R. Sunstein, *#Republic: Divided Democracy in the Age of Social Medi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7), 25-52.

에서 정체성의 문제로 전환하며, 무엇보다 정보의 ‘사실 여부’보다는 ‘나의 정체성과 과연 맞느냐’가 수용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현상을 초래한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현대 정치의 핵심적인 동인을 ‘존엄의 인정에 관한 투쟁’으로 설명하듯이, 정체성은 더 이상 단순한 문화적인 범주를 초월하여 정치적인 투쟁과 대립의 핵심적인 장이 되었다.⁶⁾ 이러한 상황 가운데, 탈진실 시대의 정체성의 정치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의 구조적인 특징을 통하여 자기 동일성의 절대화를 지향하려 한다.

우선적으로, 정체성의 정치는 정체성의 절대화 및 폐쇄적인 구조를 지닌다. 정체성은 본래적으로 관계적이며 유연한, 다시 말해, 변화 가능한 구조를 가져야 하나, 현 시대에서의 정체성은 고정되고 비가변적인 실체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경계는 강화되고, 정체성은 공적인 대화나 타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각자가 성장하기보다는 자기의 방어와 유지의 목적으로만 기능하는 폐쇄적인 구조로 변모한다. 이를 테면, 한국 사회의 젠더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정치적인 양극화는 이와 같은 정체성의 고착화 현상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사회적인 표상인 것이다.⁷⁾

그 다음으로, 타자에 대한 배제의 강화와 혐오의 발화가 나타난다. 자신의 정체성이 절대화되면, ‘내 진실’ 혹은 ‘우리 공동체의 신념’을 위협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려는 타자는 더 이상 건강한 대화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제거해야만 하는 주홍글씨와 같은 적으로 규정된다. 이러한 적으로 규정되는 것은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이 언급한 ‘호모 사케르’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적대적인 타자화는 혐오의 발화, 정치적인 낙인, 아울러 인격적인 모독을 동반하는 방식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표출된다. 아울러 공적인 영역에서 배제와 분열을 재생산하는 핵심적인 기제가

6) Fukuyama, Francis, *Identity: The Demand for Dignity and the Politics of Resentment*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2018), 55-59.

7) 송정민·김범수·이병재, “탈진실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가?,” 96.

되는 것이다.⁸⁾

마지막으로, 공적인 진리의 소멸이 나타난다. 기독교사회윤리가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객관적인 진리의 실천은 ‘감정의 정치’와 ‘정체성 기반의 진리’에 의해 급격하게 약화된다. 그래서 진리는 더 이상 공동의 삶을 위해 공유된 토대가 아닌, 특정한 정체성의 우위성을 고집하는 무기로 기능하게 되면서, 건설적인 비판과 합리적인 토론이 불가능해지는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⁹⁾

이와 같은 경향은 단순히 이론적인 진단에서만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팬덤 정치와 젠더 갈등 그리고 AI 기반 필터 버블 등과 같은 한국 사회의 실질적인 사례 속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것이다. 이는 탈진실의 인식적인 구조가 사회적, 정치적인 상호작용의 층위의 전반을 관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독교신학은 인간을 근원적으로 관계적인 성향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로 이해해왔다. 이에 대해 탈진실 시대의 자기 동일성의 절대화는 다음과 같은 기독교의 근본적인 전체를 부정하는 상당히 심각한 신학적이며 윤리적인 문제를 발생시킨다.

먼저, ‘타자성의 상실’이다. 타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엄한 인격이자, 나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관계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 오히려 타자는 ‘나의 진실을 위협하려 하는 적대적인 타자’로서 극단적으로 축소되거나, 나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도구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이는 기독교적인 사랑과 정의의 실천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

이어서, ‘공동선의 파괴’이다. 공동선은 객관적인 사실과 합리적인 속의

8) 정혜옥, “혐오발언, 주체의 행위성, 몸의 수행성,” 『비평과이론』 28(2023), 271-272.

9) Cass R. Sunstein, *#Republic: Divided Democracy in the Age of Social Media*, 25-52.

의 공유를 기초로 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지향할 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자기 동일성의 절대화가 독점되는 공동체는 사실에 관한 공유 대신에 '정체성 기반의 감정적인 동맹'으로 재구성되고야 한다. 이로 인해 공동의 이익을 위한 희생 혹은 양보가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공동선의 실현 가능성은 파괴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끝으로, '화해의 가능성의 약화'이다. 화해는 정체성의 경직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타자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정체성으로의 유연한 변형을 전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탈진실 시대에는 정체성이 절대화되고 경계가 폐쇄되는 가운데, 타자를 포용하고 더불어 새로운 미래를 구성하려는 화해의 윤리적인 공간 자체가 차단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기독교사회윤리가 화해와 공공성 그리고 공동선, 더 나아가 진리의 실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장애물로 작용한다.

이에 대해 다음 장에서는 탈진실 시대의 자기 동일성의 절대화를 초래한 서구의 근대 인식론의 근원을 탐색하고, 이에 관한 철학적인 도전이 어떠한 과정으로 등장했는지를 규명할 것이다. 특히, 칸트의 동일성을 중심으로 한 이성이 어떻게 정체성의 고착화에 이론적인 기반을 제공했는지를 분석하려 한다. 뿐만 아니라 들뢰즈의 차이생성의 철학이 이 구조를 어떻게 해체하는지를 대립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횡단적 정체성에 관한 윤리의 인식론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III. 전통적 이성의 관계 이론: 칸트의 동일성 중심적 구조

칸트는 근대주의 철학의 최정점에서 보편적인 이성과 자율성을 더욱 확고히 한 철학자이다. 그의 철학적인 기획은 자연 그리고 도덕적 세계의 '여러 혼란스러운 다양성 안에서 보편적인 타당한 형식'을 발견함으로써, 합리적인 질서를 형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칸트는 자신의 세 개의

대표적인 저작 『순수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 『판단력비판』을 통하여 인식의 문제로서의 ‘진’, 도덕의 문제로서의 ‘선’, 미적이고 목적론적인 판단의 문제인 ‘미’를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러한 ‘진·선·미’의 구조는 칸트의 철학 사상의 전체적인 조직의 원리이자 근대주의 이성의 개념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아울러 그는 각각의 자율성과 특유의 보편적인 법칙을 강조하였다.¹⁰⁾

칸트 철학에서의 이성에 관한 기획은 주체의 자율성과 아울러 타자라는 대상을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하려는 도덕적인 보편성을 확립하였다. 이는 근대 윤리의 정초에 분명히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칸트의 이성에 관한 형식적인 보편성이 역사적인 서구 중심주의, 즉 백인 및 남성주의와 결합함으로써, 주체의 자기 동일성에 관한 강박이 더욱 극대화된 것이다. 그의 이성에 관한 구조는 타자의 구체적인 차이를 배제함과 동시에 흡수하려는 폭력적 동일화의 기제로 변질되어버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정체성의 폐쇄적인 고착을 야기하는 탈진실 시대의 자기 동일성의 절대화와 본래적으로 유사한 인식론적 폭력의 구조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스피박(Gayatri Spivak)이나 지라르(René Girard)와 같은 비평가들은 칸트의 보편적 이성이 실제로 타자를 완전히 배제하고 동화시키려는 제국주의적인 정당화의 기반을 제공하였음을 지적한다. 이성의 보편적인 형식은 타자의 구체적인 차이를 흡수하고 동일성의 틀 속에 가두려 하는 도구로 작동하였다. 이는 탈진실 시대에서 재현되는 자기 동일성의 절대화와 본래적으로 유사한 인식론적인 구조를 포함한다.¹¹⁾ 그러므로 벨쉬의 입장에서 볼 때, 칸트는 자율적인 세 가지의 영역으로

10) 조종화, “자기의식의 가능성 -칸트와 헤겔을 중심으로,” 『헤겔연구』 28(2010), 310-311.

11) Gayatri Spivak, *A Critique of Postcolonial Reason*, 태혜숙·박미선 역, 『포스트식민이성비판』 (서울: 갈무리, 2005), 9.

분리되는 합리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부분에서는 충분한 기여는 하였으나, 이와 동시에 이성의 영역 간 상호 비판과 교차의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게 되는 한계를 초래하였다.¹²⁾

최종적으로, 칸트에게 있어서 이성은 ‘자신의 영역 내에서만 작동하는 적당한 형식’인 것이다. 따라서 이는 타자성이나 횡단적 관계성을 포함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벨쉬가 지적하듯이, 칸트의 이성은 다원성은 분명히 인정하나, 각각의 영역 사이의 상호교류에 대한 횡단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탈진실 시대의 자기 동일성의 절대화를 옹호하는 중요한 이론적인 토대가 된다.

이러한 칸트의 인식론은 타자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자기 동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근원적인 원인이 ‘동일성의 원리’를 기본적인 구조로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칸트에게 있어서 인식은 ‘감각적인 직관’과 ‘지성적인 개념의 종합’이다. 이와 같은 종합은 궁극적으로는 ‘동일성 원리’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무엇보다 칸트가 제시했던 ‘선형적 통각’은 경험에서의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의 다양성을 하나의 ‘동일한 자신’ 아래에서 종합하고 통일함으로써 작동한다. 이는 인식의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필수적이거나, 이와 동시에 차이를 흡수하고 동일화하려는 폭력적인 구조로 기능할 잠재적인 여지를 포함하는 것이다.¹³⁾

지라르는 이와 같은 동일화에 관한 구조를 ‘희생양의 메커니즘’과 접목하여 보편적인 질서의 명분으로써, 타자성이 억압받는 메커니즘을 폭로했다.¹⁴⁾ 그리고 스피박은 칸트의 판단력 비판으로써의 미학에 관해서 진정한 미적인 판단의 주체는 단순히 문명화된 백인 중에서 남성을 주체로

12) Wolfgang Iser, *Vernunft*, 조상식 역, 『이성 1권』 (서울: 이학사, 2010), 24.

13) 김창훈,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왜 폭력적인가 [인문건문록] 칸트의 〈영구평화론〉,”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28997> [게시 2019, 2. 16]

14) René Girard, *Le Bouc émissaire* (Paris: Grasset, 1982), 17-38.

한정한다. 게다가 식민지의 하위 주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판단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관해 과감하고 예리하게 비판했다.¹⁵⁾

결과적으로, 칸트의 이성에 관한 구조는 먼저 영역 간의 횡단적인 비판의 부재, 그리고 동일성을 중심으로 한 차이를 흡수하려는 종합적인 구조, 마지막으로, 비판적인 고찰이 결여되어진 제국주의적인 보편성이라는 이 세 가지의 구조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는 ‘내 진실’을 극단적으로 고정하고 타자를 배제하려는 탈진실 시대의 자기 동일성에 관한 절대화의 경향에 상당히 유사한 인식론적인 틀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칸트의 철학은 근대적인 정체성의 개념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이고 인식론적이며 형이상학적인 기반을 제공한 것이 사실이다. 칸트가 강조했던 동일화의 원리는 주체를 자율적이고 자기동일적인 실체로 구성하고자 하는 근대적인 인식의 구조에 정초하였다. 이러한 동일성을 강조하는 구조는 탈진실 시대에 나타나는 ‘자기 진실’의 폐쇄적인 고착화라는 사회윤리적인 현상과 구조적인 연속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¹⁶⁾

환언하면, 근대적 이성에 의한 자기동일적인 구성의 원리라는 것은 오늘날 탈진실적인 정체성의 정치 속에서 더욱 극단화됨으로써, 타자의 비판 및 교정을 배제함으로 인해 자기의 확신만을 절대화하고자 하는 정체성의 구조로 변형되는 가운데 작동하고 있다. 칸트적인 이성은 자율성을 통하여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긍정적인 측면을 분명히 지녔지만, 그러한 결과로 타자의 차이와 다양성을 내포하지 못하고 폐쇄적이며 고정된 자기 동일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자기 동일성 중심의 인식론적인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관계적 유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차이와 생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관계성의 철학을 모색

15) Gayatri Spivak, 『포스트식민이성비판』, 9.

16) Wolfgang Welsch, 『이성 1권』, 25.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 장에서는 칸트의 자기 동일성 중심의 이성과 대책점에 있는 들뢰즈의 차이생성의 철학이 어떠한 과정으로 탈진실 시대의 정체성의 절대화를 해체하고, 횡단적 정체성의 가능성을 개방하는 이론적인 자원이 되는지를 심층적으로 논의하려 한다.

IV. 들뢰즈의 차이와 생성 철학: 관계성의 재구성

들뢰즈의 철학은 칸트와 아울러 근대의 형이상학의 동일성 중심의 철학에 관해 보다 근본적인 도전을 표방하면서, 차이를 존재론의 핵심적인 작동 원리로 제시하고자 한다. 전통적인 철학에서 주장하는 ‘차이’는 동일성의 부재나 결여, 혹은 단순히 부정적인 속성으로 이해되곤 했다. 그러나 들뢰즈는 이 차이를 “역동적으로 스스로 생성하려는 힘”으로 재해석한 것이다.¹⁷⁾ 들뢰즈에게 있어서 존재는 고정되거나 정지되어 있는 실체가 아닌, 차이의 생성에 대한 과정으로써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정체성은 칸트적인 의미의 동일성으로의 고착이 아니다. 오히려 차이들의 흐름 가운데 지속적으로 재구성 또는 생성되는 과정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정체성을 폐쇄적인 실체로 간주하려고 하는 근대적인 사유를 완전히 전복한다.

다시 말해, 들뢰즈는 이 ‘반복’의 개념을 통하여 자기 동일성의 철학을 전복하려는 것이다. 전통적인 반복이 동일한 것에 대한 단순한 재현이라고 한다면, 들뢰즈에게 있어서의 반복은 ‘동일한 것의 단순한 반복’이 아닌, 차이 그 자체의 반복이다. 곧 정체성은 반복적인 경험을 통하여 고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차이’와 함께 ‘변이’가 나타난다. 주체는 이와 같은 차이의 반복의 메커니즘 속에서

17) 김재춘·배지현, 『들뢰즈와 교육 (차이생성의 배움론)』 (서울: 학이시습, 2016), 65.

관계적인 속성과 더불어 생성적으로 변화하고 더욱 확장된다.¹⁸⁾ 이 생성적이며 관계적인 정체성의 개념은 곧 탈진실 시대에서 나타나는 ‘폐쇄적이고 고정된 자기 동일성’과는 반대의 구조를 제시한다. 들뢰즈에게 있어서 정체성은 폐쇄가 아니라 개방으로, 배제가 아니라 차이에 대한 존중으로, 또한 고정이 아니라 유동적인 생성을 관계성의 기본적인 원리로 수용한다.

들뢰즈는 존재에 관한 생성의 과정을 강도적인 차이와 잠재적인 이념의 개념을 통하여 세밀하게 설명하며 강조한다. 강도는 비대칭적인 차이를 생성하는 운동이며, 잠재성이 현실적으로 분화되는 힘인 것이다. 잠재적인 이념은 아직은 비록 현실화되지는 않았으나, 현실성을 규정하려는 차이의 구조를 내포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¹⁹⁾ 이와 같은 존재론적 구조 가운데에서 정체성은 단순히 고정되어진 실체가 아닌, 차이적 운동들의 강도적인 결합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역동적인 에너지이다. 이는 정체성을 본래적인 속성으로서 실체화하며 고정함으로써, 갈등과 분쟁을 재생산하고자 하는 현대의 정체성 정치의 경향과는 본래적으로 다른, 아주 유연하고도 개방적인 정체성의 이해를 부여한다.

탈진실 시대의 핵심적인 특징은 정체성의 폐쇄적인 고착화와 의미의 단일한 규정성 그리고 타자에 대한 적대적인 배제, 여기에 더하여 차이에 관한 구조적인 두려움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정체성을 단순히 고정되어진 동일성으로 간주하는 근대적인 정체성의 구조와 긴밀하게 연결된다. 이에 대해 들뢰즈의 철학에 관한 사유는 자기 동일성 중심의 정체성의 관념을 기본적으로 해체하려는 대안적인 인식론을 제안한다. 들뢰즈에게 있어서 정체성은 단순한 실체가 아니라 ‘차이의 흐름 가운

18) Gilles Deleuze, *Différence et répétition*, 김상환 역, 『차이와 반복』 (서울: 민음사, 2004), 494-495.

19) 위의 책, 680.

데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된다. 뿐만 아니라 정체성은 동일성에 대한 반복이 아닌 차이의 반복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다.²⁰⁾

그러므로 정체성은 완성된 본질이 아닌 다양체의 분화와 강도의 변주 그리고 생성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타자는 나의 동일화를 위협하려는 외부적인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생성에 관한 조건이며 정체성의 확장의 계기인 것이다. 들뢰즈가 주장하는 차이에 관한 존재론은 자기 동일성의 절대화를 전적으로 해체하고, 차이를 제거하거나 동일화하지 않는 개방적인 관계성을 가능케 한다. 최종적으로는 들뢰즈의 차이와 생성의 철학적 사유는 탈진실 시대에 나타나는 자기 절대화로 점철된 정체성의 구조를 비판적으로 해체시키며, 타자와 아울러 공동체의 관계적인 재구성을 위한 강력한 철학적인 자원을 제공해 준다.²¹⁾

들뢰즈가 주장하는 철학적 존재론은 기독교사회윤리에 관해 아래와 같은 세 가지의 중요한 기여를 부여한다. 첫째, 정체성의 절대화의 전복이다. 둘째, 관계성과 개방성의 회복이다. 셋째, 다원적인 공동체성에 관한 가능성을 탐색한다. 이와 같은 기여는 기독교의 화해윤리가 지향해야 할 관계적인 유연성의 철학적 기반을 제시한다.

하지만 들뢰즈는 존재론적인 차이를 중심으로 사유를 전개하기에, 진리와 윤리, 그리고 공동선과 같은 규범적인 실천의 구성에 관한 구체적이며 보편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를 지닌다. 왜냐하면 차이와 다양성 그 자체의 존중이 윤리적인 행위의 정당하나 공적인 속의의 기반을 보장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들뢰즈가 강조하고자 하는 차이생성 철학은 정체성의 절대화를 전복하는 데 강력한 존재론적인 자

20) 위의 책, 222.

21) Wolfgang Welsch, 『이성 1권』, 459.

원이 되기는 하지만, 규범성의 구성이라는 측면에서의 사회윤리학적인 과제에 대해서는 특유의 한계를 나타낸다. 들뢰즈의 철학은 차이 그 자체의 무한한 공정을 핵심으로 삼고 있기에, 각 개별적인 주체들이 함께 합의하고 준수해야 하는 윤리적인 기준 혹은 공동선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잠정적인 보편성을 정초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즉, 동일성에 관한 해체 작업 이후에, '타자와 더불어 살아가야 할 사회의 기반'을 구축하는 실천적인 지평을 제시하는 데에는 사실 미흡하다.

바로 이 부분에서 벨쉬의 횡단적 이성이 들뢰즈의 차이와 다양성을 긍정하면서도 칸트의 보편성에 관한 요구 사이에서 규범적인 연결점을 탐색하는 임무를 전적으로 수행 가능하다. 이에 따라 다음 장에서는 벨쉬의 '횡단적 이성'이 들뢰즈의 차이와 다양성 그리고 칸트의 보편성을 매개하고 접목하는 다리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것으로 사료된다.

V. 벨쉬의 횡단적 이성: 차이와 보편성의 조율

벨쉬는 후기 근대주의 사회를 차이와 다원성, 그리고 복잡성이 심화되어진 현상으로 진단한다. 그는 근대주의의 단일한 이성의 틀과 후기 근대의 반이성적인 해체주의의 단순한 양자택일적인 대립적 구도를 거부하는 가운데, 보다 새로운 구조의 합리성의 개념, 곧 '횡단적 이성'을 제안한다. 그의 주요 저작인 『우리의 포스트모던적 모던』 (*Unsere postmoderne Moderne*)에서 그 내용을 핵심적으로 전개하려 한다.²²⁾

벨쉬의 철학적인 관심은 단순히 다원성을 긍정하는 것을 초월하여 다양하고도 다채로운 합리성 그리고 보편성의 요청 간의 필연적인 긴장을 조율할 수 있는, 보다 새로운 합리성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있다. 그는 이성을 더 이상 고정되어진 단일체가 아닌, 다양하고도 다채로운 합리성

22) 위의 책, 21.

의 영역들(예를 들어, 과학, 예술, 윤리, 종교 등)이 상호 간에 교차하고 비판적이며 상호적인 조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조율이 가능한 네트워크적인 구조로 재정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재진단은 탈진실 시대에서 심화되는 정체성의 절대화와 인식의 분절성을 극복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이론적 대응의 토대를 제공한다.²³⁾

벨쉬가 주장하는 횡단적 이성은 칸트의 이성과 후기 근대적인 무질서한 상대주의의 양극단을 초월한 제3의 합리성의 길을 제시한다. 무엇보다 그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다원적인 합리성의 긍정인 것이다. 횡단적 이성은 다양한 영역(예를 들어, 과학적인 합리성, 예술적인 합리성, 종교적인 합리성)이 각각 고유한 합리성을 지닌다. 아울러 이들은 하나의 중심적인 원리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인정한다. 이는 근대적인 보편주의가 포함했던 타자의 합리성에 관한 폭력적인 자기동일화의 가능성을 해체하는 첫 단계인 것이다.²⁴⁾

다음으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상호 간의 교차와 비판으로써의 횡단성이다. 횡단적 이성의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횡단성’이다. 이는 지배와 흡수의 관계가 아닌, 각각 다른 합리성의 영역들이 경계를 넘나들며 보다 비판적으로 상호 간에 조명하는 구조를 뜻한다. 곧 횡단적 이성은 본래적으로 관계적인 이성이며, 배타적인 보편성과 무원칙적인 상대주의의 한계를 동시에 극복하려 하는 실천적인 방법론을 제시한다.²⁵⁾

마지막으로, 부분적인 보편성의 발생 가능성이다. 벨쉬에 의하면, 각각 다른 합리성의 영역들이 횡단적으로 교차하고 소통할 때에 완전한 보편성은 불가능하더라도, 부분적이거나 국지적인 수준의 보편성이 일시적으

23) Wolfgang Welsch, *Unsere postmoderne Moderne*, 박민수 역, 『우리의 포스트모던적 모던 2권』 (서울: 책세상, 2001), 734-749.

24) 위의 책, 749.

25) 위의 책, 731.

로 발생 가능하다. 이는 탈진실 시대에 파괴된 공적인 진리의 기반을 잠정적인 합의와 아울러 공동의 숙의를 통하여 재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이론적 자원이 되는 것이다.²⁶⁾

벨쉬의 횡단적 이성은 정체성에 관한 근대적이고 폐쇄적인 관점을 본질적으로 변혁시키려 한다. 근대적인 정체성의 이해가 자기 동일성을 단순히 고정된 실체로 간주했다면, 횡단적 이성의 관점에서의 정체성은 경계 내에서 고정된 실체가 아닌, 다양하고도 다채로운 경계 간에 역동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이다. 정체성은 다양한 문화와 담론 그리고 관점과의 횡단적인 만남과 상호 간의 교차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재구성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관계적이고 개방적인 정체성의 구조를 ‘횡단적 정체성’으로 개념화하려 한다.

횡단적 정체성은 탈진실 시대의 정체성의 고착화에 관한 윤리적인 대안으로써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환언하면, 횡단적 이성에 기초한 횡단적 정체성은 탈진실 시대의 자기 동일성의 절대화에 관한 윤리적인 대안으로, 다음의 네 가지의 구조적인 특징을 지닌다.

첫째, ‘개방성’이다. 횡단적 정체성은 타자성의 합리성과 존재론적인 차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의 영역을 새롭게 구성하려는 개방적인 태도를 지닌다. 이는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타자를 배제하는 폐쇄적인 윤리를 해체함과 동시에 기독교사회윤리가 지향하는 포용과 겸손의 실천을 가능케 한다.²⁷⁾

둘째, ‘유동성’이다. 이는 고정되고 완결된 실체가 아닌, 타자와의 관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생성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유동성은 정체성을 절대화하려는 탈진실 시대의 경향성을 거부하고,

26) 위의 책, 731-733.

27) Miroslav Volf, *Exclusion and Embrace*, 박세혁 역, 『배제와 포용』 (서울: IVP, 2012), 223-225.

관계적인 유연성에 의해 자기 동일성의 고착화를 예방할 수 있다.²⁸⁾

셋째, ‘비판성’이다. 횡단적 정체성은 타자의 합리적이며 윤리적인 비판을 자기의 성찰의 기회로 삼아서 정체성의 영역과 규범적인 기준을 교정하고 재조율한다. 이는 주체가 타자와의 공적인 숙의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윤리적인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독단적인 진리의 주장에서 벗어나게 하려 한다.²⁹⁾

넷째, ‘공동성’이다. 정체성은 개인의 내면 혹은 고립된 자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닌, 타자와의 횡단적인 관계 안에서 더불어 형성되고 그 의미를 획득하는 것이다. 그래서 횡단적 정체성은 공동체의 유익과 책임을 중요시하는 공동선의 실현을 위한 본질적이며 관계적인 전체가 된다. 이와 같은 횡단적 정체성의 개념은 볼프(Miroslav Volf)가 강조한 ‘상호 간의 변형(mutual transformation)’의 윤리적인 기획에 철학적이며 인식론적인 정당화를 부여한다.³⁰⁾

이렇게 횡단적 이성과 횡단적 정체성의 틀은 탈진실 시대의 기독교사회윤리가 직면한 문제에 아래와 같은 실천적이며 이론적인 함의를 제시한다.

우선, 정체성의 절대화의 해체이다. 횡단적 정체성은 ‘내 진실’ 혹은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을 절대화하고 타자를 배제하려는 탈진실적인 인식의 구조를 타파하고, 기독교가 지향하는 겸손과 개방성을 윤리적으로 구현하고자 한다.

이어서, 포용의 윤리의 철학적인 기초를 제공한다. 횡단적 이성은 들뢰즈의 차이와 생성의 철학이 지닌 규범성의 부족함의 한계를 극복하고, 볼프의 포용론이 주장하는 타자와의 상호 간의 변형을 인식론적으로 정

28) 위의 책, 225-226.

29) 위의 책, 226-228.

30) 위의 책, 228-233.

당화하려는 논리적인 틀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공동선에 관한 재구성의 방법론을 제시한다. 다양하고 다채로운 정체성과 합리성을 존중하면서도, 횡단적인 교차를 통하여 부분적인 보편성이라는 공통의 토대를 모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한다. 이는 탈진실 시대에 해체된 공동선을 분명히 회복하고 화해의 담론을 구성하고자 하는 새로운 윤리적인 기틀을 형성하는 것이다.

다만, 벨쉬의 횡단적 이성(성)은 그 자체로 강력한 조정적인 합리성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초월적이며 신학적인 근거와의 접목이 다소 제한적이라는 것은 분명히 지적받을 만한 요소이다. 특히, 구원론적인 차원에서의 변형과 삼위일체적인 관계성 그리고 은총의 사건과 같은 기독교적인 요소들을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그 철학적인 범주에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적인 고려는 본 연구가 이후에 제시할 볼프의 신학적인 기여와의 통합을 더욱 설득력 있게 구성하는 근거가 된다.

VI. 비판적 종합: 횡단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포용의 윤리

무엇보다 ‘횡단적 정체성’이 전면적인 해답의 역할로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관계의 개방성과 유동성은 분명히 강점이 되기는 하지만, 공동체 내부에서의 규범적인 경계의 설정이나 급진적인 타자성의 상황에서 요구되어지는 도덕적인 판단의 기준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약점도 분명 존재한다. 따라서 이 개념은 신학적이며 윤리적인 규범성과 통합될 때, 온전한 기여를 부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일환으로써, 볼프의 포용에 관한 이론이 보완적인 역할을 감당한다. 볼프의 대표적인 저작 『배제와 포용』(*Exclusion and Embrace*)은 기독교신학 내에서 ‘배제’의 문제를 깊이 다루고, 십자가와 삼위일체의 신학을 기초로 한 포용의 윤리를 정립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는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네 단계의 상징적인 과

정으로써, 즉 팔 벌리기, 수용, 상호 간의 변형, 새로운 공동체를 제시함으로써, 타자와의 화해를 위한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윤리를 공식화하였다.³¹⁾

다만, 볼프의 포용이론은 탈진실 시대라는 새로운 정보의 환경과 아울러 정체성 구조 내에서 몇 가지 이론적인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 한계는 아래와 같다.

먼저, 정체성의 변형 과정에서의 인식론적인 공백이다. 볼프의 핵심적인 개념으로써, ‘상호 간의 변형’은 신학적으로 풍부한 은유로 작용하지만, 정체성이 실상 어떠한 인식론적이며 사회철학적인 메커니즘을 통하여 변화하는지에 관한 분석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³²⁾ 일부의 연구자들은 볼프의 변형에 관한 개념은 신학적인 심상에 그치며, 정체성의 형성에 관한 사회문화적인 구조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³³⁾

그 다음으로, 정체성의 절대화의 시대적인 조건을 분석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탈진실 시대에는 개인과 집단이 ‘내 진실’을 절대화함으로써, 고착화된 정체성을 강화하려 한다.³⁴⁾ 이에 관해 볼프의 포용 윤리는 이와 같은 인식의 구조와 미디어 환경 그리고 정체성의 정치를 분석하려는 사회철학적인 장치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포용이 정체성의 절대화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해체하는 데 사실상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화해담론의 공허화의 위험이 존재한다. 포용은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서 종종 도덕적인 수사로 소비되곤 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같

31) 위의 책, 222-233.

32) Nicholas Wolterstorff, “Review of Exclusion and Embrace,” *Modern Theology* 14, 3(1998), 485-490.

33) Kevin J. Vanhoozer, *Faith Speaking Understanding*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14), 210-214.

34) 송정민·김범수·이병재, “탈진실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가?” 112.

등을 해결하는 실행적인 기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단순히 ‘공허한 이상주의’로 전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벨쉬의 횡단적 이성의 개념은 볼프의 포용론이 가진 위의 인식론적인 한계를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이를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변형 과정의 구조적인 해명이 가능하다. 횡단적 이성은 정체성이 각자 다른 합리성의 횡단적인 교차와 상호 간의 비판을 통하여 변형된다는 것을 명확히 제시한다. 따라서 정체성의 변화는 단순히 윤리적인 혹은 신학적인 은유가 아닌, 인식적이고 구조적인 과정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³⁵⁾

다음으로, 정체성의 절대화의 해체를 바탕으로 한다. 횡단적 정체성의 구조는 정체성을 경계 안의 고정된 실체가 아닌 경계 간 교차적인 구성물로 정의함으로써, 정체성의 절대화라는 탈진실적인 경향성을 인식론적인 차원에서 해체하며 포용의 실제적인 가능성을 개방한다.³⁶⁾

결론적으로, 벨쉬의 횡단적 이성은 볼프의 포용론을 ‘변형의 철학’으로 더욱 확장함으로써, 신학적인 포용의 개념에 상당히 견고한 인식론적이고 사회철학적인 기반을 제공한다. 칸트의 동일성 중심의 이성과 들뢰즈의 차이와 생성 철학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가운데, 벨쉬의 횡단적 이성을 종합한 결과,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횡단적 정체성에 기초한 포용의 윤리 모델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체성의 재정의’이다. ‘횡단적 정체성’이라는 개념은 정체성을 고정되어진 실체나 내재적인 본질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더 다양하고 다채로운 타자의 관점 및 합리성의 삶의 양식과 상호 교차적이며 관계적인 작용 속에서 형성되고, 갱신되어지는 유동적인 구성물로 이해할 수

35) Wolfgang Welsch, 『이성』 1권, 42-43.

36) 위의 책, 43-44.

있다. 이와 같은 정체성의 모델은 자기 동일성의 종합을 중심으로 한 근대적인 정체성의 개념을 초월하여 상호 간의 번역 가능성 그리고 관계적인 개방성을 핵심적인 요소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포용의 인식론적인 사건’이다. 횡단적 정체성의 구조에서 포용은 단순한 윤리적인 미덕이나 도덕적인 호의가 아닌, 타자와의 만남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이 변형되고 재구성되는 인식론적이며 존재론적인 사건으로 이해 가능하다. 포용은 주체와 타자의 경계를 재조정하며, 이 과정에서 상호 간의 변형이 발생한다. 곧 포용은 횡단적 이성이 작동하는 구체적인 현장으로써, 정체성의 폐쇄성을 해체하고 관계의 보다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것이다.

셋째, ‘탈진실 극복의 구조적인 틀’이다. 탈진실 시대의 근원적인 문제는 ‘내 진실’로 환원된 폐쇄적인 자기 동일성의 절대화로 점철되는 것이다. 횡단적 정체성은 이와 같은 폐쇄적인 동일성을 넘어설 수 있는 윤리적이면서 인식론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정체성을 관계적이고 개방적인 생성의 과정으로 재규정함으로써, 타자에 관한 배제와 자기확증적인 정체성의 정치 구조를 본질적으로 비판하고 재구성할 수 있다.

넷째, ‘윤리의 재구조화’이다. 기독교사회윤리는 횡단적 정체성을 기초로 진리와 포용 그리고 공동선이라는 핵심적인 윤리의 개념을 재해석할 수 있다. 절대적인 보편성에 관한 근대적인 요구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또한 진리에 대한 파악은 다원적인 정체성 간의 횡단적인 대화로 하여금 잠정적이고 국지적인 보편성의 형태로 새롭게 정립된다. 이는 탈진실 시대의 폐쇄적인 진리의 주장에 관한 대안적인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 포용은 정체성의 변형을 가능케 하는 실천적인 지평이 된다. 공동선은 단일한 동일성의 강요가 아닌, 다양하고도 다채로운 정체성들이 상호 간에 교차하는 과정 안에서 형성되는 상호성의 결과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

라 기독교사회윤리는 탈진실 시대에 적합한 관계적이고 대화적이며 공공적인 윤리의 틀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횡단적 정체성에 관한 모델은 기독교사회윤리가 당연한 공적인 책임의 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함의를 제공한다. 먼저, ‘진리와 포용의 재구성’이다. 진리는 그 자체로 주관적인 선호나 정체성의 확증과 동일시될 수 없으며, 탈진실 시대의 조건 내에서도 여전히 규범적이며 초월적인 기준인 것이다. 다만, 그러한 진리에 대한 이해와 공적인 정당화는 다양한 관점 사이에 비판적인 교차를 통하여 더욱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다. 이로 하여금 진리의 주장과 포용의 실천 사이의 긴장이 조율된다.³⁷⁾

더 나아가 ‘공동선의 회복’이다. 공동선은 특정한 정체성의 통일에 관한 강요가 아닌, 다양한 합리성과 정체성의 횡단적인 교차를 통한 공통의 기반의 형성으로 재구성된다.³⁸⁾

마지막으로, ‘교회의 공적인 책임 강화’이다. 교회는 단순한 포용의 담론의 반복을 넘어서 자신의 정체성의 구성 자체를 횡단적 변형의 과정에 참여시킬 때, 비로소 탈진실 시대의 분열에 맞서는 진정한 공적인 책임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³⁹⁾

본 논문이 제안하는 횡단적 정체성의 모델은 기독교신학의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의 개념인 ‘삼위일체’에서 그 신학적인 원형을 탐색할 수 있다. 삼위일체는 동일성, 곧 동일한 본질 안에서 세 위격, 즉 차이에 의한 존중이 상호 내주(Perichoresis)하고, 공존하며 상호 간에 침투하는 관계적인 틀이다.⁴⁰⁾ 이는 ‘자기 동일화 중심의 폐쇄적인 정체성’을 초월하여

37) 윤철호, “공적신학의 주요 초점과 과제,” 『한국조직신학논총』 46(2016), 175-176.

38) 고원석,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교육학적 태도 - 벨쉬와 쾨의 사상을 중심으로,” 52(2017), 86-87.

39) Miroslav Volf, 『배제와 포용』, 197-207.

40) Miroslav Volf, *After Our Likeness: The Church as the Image of the Trinity*, 황은영 역, 『삼위일체와 교회』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2), 348.

‘관계적인 개방성’과 ‘차이의 상호성’이 본질을 이뤄내는 최초의 횡단적 관계성에 관한 모델인 것이다. 그러므로 횡단적 정체성은 타자의 합리성을 받아들여 자신의 정체성을 갱신 및 변형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관계적이며 고유한 존재로서 인간 정체성을 온전하게 구현하는 윤리적인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볼프가 강조한 포용의 윤리가 단순히 인간적인 미덕이 아니라, 신적인 관계성의 구조에 깊이 뿌리 내린 것임을 보여준다.

VII. 나가는 말

본 연구는 21세기 글로벌 사회를 관통하는 탈진실 시대의 구조적 위기에 주목하는 것과 동시에 이 환경으로 인해 야기되는 자기 동일성의 절대화와 이에 따른 공적인 진리의 소멸 그리고 타자에 대한 배제의 윤리적인 문제를 기독교사회윤리의 측면에서 진단하였다. 우리는 탈진실이 단순한 미디어 현상이 아닌, 주관적인 감정과 정체성이 진리 판단의 규범적인 지위를 잠식하는 본질적이며 인식론적인 전환임을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기조 속에서 기독교사회윤리가 전통적으로 추구해왔던 화해와 공동선의 실천은 심각한 장벽을 실감하고 있다.

이 위기에 관한 대안적인 합리성과 윤리적인 틀을 모색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서구 철학사의 세 축을 비판적으로 횡단하는 방법론을 선택하였다. 먼저는 칸트의 자기 동일성 중심의 이성이 근대적인 정체성의 고착화와 폭력적인 보편성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이어서 들뢰즈의 차이와 생성의 철학적 존재론을 통하여 동일성 중심의 인식을 근원적으로 해체하는 철학적인 자원을 확보하였다. 다만, 들뢰즈의 철학이 지닌 규범성에 관한 부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자는 벨쉬의 횡단적 이성을 도입함으로써, 차이와 보편성 사이의 긴장을 조율하는 제3

의 합리성에 대한 길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이 소개할 수 있다. 벨쉬의 횡단적 이성을 볼프의 포용의 윤리와 통합함으로써, ‘횡단적 정체성’이라는 기독교사회윤리학적인 실천의 틀을 정립한 데 있다. 횡단적 정체성은 정체성을 폐쇄된 실체가 아닌, 보다 다양하고도 다채로운 타자와의 비판적인 교차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형되고 갱신되는 관계적인 구성물로 정의 가능하다. 이는 볼프의 ‘상호 간의 변형’이라는 신학적인 은유에 인식론적인 작동 기제를 부여함으로써, 포용을 단순히 도덕적인 호의가 아니라, 주체의 존재론적이며 인식론적인 사건으로 승화시키는 데 성공하였다고 평가한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은 탈진실 시대의 기독교사회윤리가 칸트의 고정되고 폐쇄된 자기 동일성이나 들뢰즈의 비정형적인 상대주의의 양극단을 초월하여 횡단적 정체성이라는 제3의 합리적이며 실천적인 길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학술적인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모델은 오늘날 한국사회의 정치적인 양극화와 젠더의 갈등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과 같이 정체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영역에서 타자를 단순히 나를 위협하는 적으로만 규정하지 않고 함께 변형되는 공존의 윤리를 구현하는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횡단적 정체성의 원리가 한국교회의 배타적인 정체성을 진단하고 공적인 책임감을 강화하는 실천신학적인 방법론을 모색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리라 보고 전망한다.

참고문헌

•국내서적

김재춘·배지현, 『들뢰즈와 교육 (차이생성의 배움론)』. 서울: 학이시습, 2016.

•해외서적

Fukuyama, Francis. *Identity: The Demand for Dignity and the Politics of Resentment*.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2018.

Girard, René. *Le Bouc émissaire*. Paris: Grasset, 1982.

McIntyre, Lee. *Post-Truth*. Cambridge, MA: MIT Press, 2018.

Sunstein, Cass R. *#Republic: Divided Democracy in the Age of Social Medi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7.

Vanhoozer, Kevin J. *Faith Speaking Understanding*.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14.

•번역서

Deleuze, Gilles. *Différence et répétition*. 김상환 역. 『차이와 반복』. 서울: 민음사, 2004.

Spivak, Gayatri. *A Critique of Postcolonial Reason: Toward a History of the Vanishing*. 태혜숙·박미선 역. 『포스트식민이성비판』. 서울: 갈무리, 2005.

Volf, Miroslav. *After Our Likeness: The Church as the Image of the Trinity*. 황은영 역. 『삼위일체와 교회』.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2.

_____. *Exclusion and Embrace*. 박세혁 역. 『배제와 포용』. 서울: IVP, 2012.

Welsch, Wolfgang. *Vernunft*. 조상식 역. 『이성 1권』. 서울: 이학사, 2010.

_____. *Unsere postmoderne Moderne*. 박민수 역. 『우리의 포스트모던적 모던 2권』. 서울: 책세상, 2001.

•학술논문

고원석.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교육학적 태도 — 벨쉬와 켈의 사상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52(2017), 71-106.

- 송정민 · 김범수 · 이병재. “탈진실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가? 생산, 유통, 소비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32(2023), 91-124.
- 윤철호. “공적신학의 주요 초점과 과제.” 『한국조직신학논총』 46(2016), 175-214.
- 정혜욱. “혐오발언, 주체의 행위성, 몸의 수행성.” 『비평과이론』 28(2023), 271-313.
- 조종화. “자기의식의 가능성 — 칸트와 헤겔을 중심으로.” 『헤겔연구』 28(2010), 309-349.
- 최지수 · 윤석민. “가짜뉴스 거버넌스: 정부규제, 자율규제, 공동규제 모형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6(2019), 127-180.
- Wolterstorff, Nicholas. “Review of Exclusion and Embrace.” *Modern Theology* 14, no. 3(1998), 485-490.

•신문

- 김창훈.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왜 폭력적인가 [인문건문록] 칸트의 〈영구평화론〉.” 『프레스시안』. 2019.2.16.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28997>

논문투고일: 2025년 11월 15일

심사개시일: 2025년 11월 17일

게재확정일: 2025년 12월 16일

• 국 문 초 록 •

본 논문은 탈진실 시대에 심화되어진 정체성의 절대화 그리고 공적인 진리의 소멸을 기독교사회윤리학적인 관점에서 진단하며, '횡단적 정체성'을 토대로 포용의 윤리를 제시하려 한다. 탈진실은 정체성과 감정이 진리의 판단을 분별하는 인식론적인 변화를 뜻한다. 이는 폐쇄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동일성과 공동선의 붕괴를 낳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근대적인 고정화를 창출한 칸트의 동일성에 관한 이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들뢰즈의 차이생성 철학이 관계적인 정체성에 대한 가능성을 탐구하려 한다. 다만, 규범적인 제시에 한계를 가진 들뢰즈의 철학을 보완하기 위해서 벨쉬의 횡단적 이성이 다원성과 보편성의 조율을 가능케 하는 제3의 합리성임을 증명한다. 이를 통하여 정체성이 고정되어진 실체가 아닌, 교차적인 과정으로 재정의하며, 탈진실 시대의 배제에 관한 문제를 극복하려는 포용의 윤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탈진실, 자기 동일성, 차이의 윤리, 횡단적 이성, 횡단적 정체성, 임마누엘 칸트, 질 들뢰즈, 볼프강 벨쉬, 미로슬라브 볼프, 포용의 윤리, 기독교사회윤리, 공동선
